

담양출신 독립군 전사 김일곤 여성 항일투사 신경애를 아시나요?

900만 돌파 ... '암살' 흥행 계기로 본 광주·전남 독립운동가들



영화 '암살'에서 등장인물들이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 이동하는 장면.

영화 '암살'에서 '속사포'역을 맡은 조진웅

영화 '암살'이 관객 900만명을 동원하며 인기를 끌면서 항일운동가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 영화에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여성 항일운동 저격수'라는 가상 캐릭터와 함께 김구, 김원봉 등 실존 인물의 이야기도 함께 등장하며 더욱 흥미를 끌고 있다. 과거 사에 관심이 없는 세대에겐 항일운동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는 점에서 이 영화의 가치는 충분해 보인다. 또 영화 '암살'에는 직간접적으로 광주·전남의 항일 역사도 묻어 있다.

◇지역 투사를 의열단 참여=영화 '암살'에서 배우 조승우가 연기한 김원봉은 안기시스트 성격의 무장독립운동단체 '의열단'을 조직한 인물이다. 이 지역 항일 투사 중 의열단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활약은 영화 속에서 목숨을 바쳐 영웅적으로 총을 쏘며 저항했던 등장인물들 못지 않게 '영화적'이다.

담양 출신인 김일곤(1912~1943년)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나자 비밀연락원으로 활동하다 붙잡혔지만 당시 17세 미성년자여서 반년 남짓 수감됐다 출감한다.

1933년 여름, 그는 중국으로 망명해 의열단이 강소성 강녕현에 설치하였던 조선혁명간부학교에 입학한다. 그는 1939년 봄, 중국 호북성 통성 송양지구에서 일본군의 탱크 2대를 파괴한다. 유격대가 일본의 탱크를 2대나 파괴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며, 김일곤이 맹활약을

김일곤

- 17세 때 광주학생독립운동 참가해 옥고 치러
- 1933년 중국에서 의열단 가입 ... 유격대 활동
- 1939년 송양지구 전투에서 일본군 탱크 2대 파괴
- 1943년 태항산 전투서 장렬하게 전사

신경애



신간회 자매조직
'근우회' 광주지회장 맡아
여성 항일운동 이끌어
노동절 투쟁 이끌다 옥고 치르고
광주학생독립운동 주도

한 태항산 유격대는 중국내에서도 영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1942년 9월부터는 진서북 지역 책임자가 돼 일본군의 완전포위 속에서 탈출하기도 했다. 1943년 4월 14일 일본군 100여명이 공격하자 끝까지 버티 싸우다 태항산(太行山) 지구에서 전사한다.

김일곤은 수많은 일본 헌병을 쓰러뜨린 영화 '암살' 속 항일무장투사들의 영웅적인 모습 그대로의 삶을 살다가 사진 한 장 남기지 않고 장렬히 생을 마감했다. ◇여성 독립 운동가 조명=영화 '암살'은 그동안 남자들에게 가려져 있던 여성 독립투사들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

도 눈여겨봐야 한다. 영화에서는 자신의 아버지를 암살해야 하는 비운의 여성 저격수로 그려지지만 실제 항일 운동가로서도 여성들의 활약은 빼놓을 수 없는 역사다.

대부분 국민은 여성 항일 투사라고 하면 '유관순'만을 손꼽지만 광주지역에서도 잊어서는 안 될 여성 투사들이 많다.

이 지역에는 영화에서처럼 직접 저격총을 들고 암살에 나선 여성 투사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지만 묵묵히 항일 전선에서 모든 걸 내던진 투사들이 많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경애(1907~1964년)는 남편과 남편의 형제인 강영석, 강해석, 강석원 등과 항일 운동을 함께했다. 남자들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지만 신간회 자매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근우회 광주지회장 등을 지내며 지역 내 여성 항일 운동을 이끌었다. 1928년 담양 전남장년연맹 여성부 대표, 1929년도에는 광주전남장년동맹 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했고, 1930년대 노동절 투쟁을 이끌다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시댁 식구들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도했다.

영화 '암살'에서 "누군가 몰래 돈을 보내고 있다"는 김원봉의 대사처럼, 남성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성투사들의 피눈물이 항일 독립사에 아로 새겨져 있다.

한편 정부에서 여성독립운동가로 인정된 유공자는 248명뿐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앙코르 비발디'

사운드포스트 앙상블 14일 금호아트홀서 공연

바로크 음악을 대표하는 비발디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사운드포스트 앙상블(단장 오현미·사진)이 오는 14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앙코르 비발디' 공연을 갖는다.

연주 레퍼토리는 '네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단조', '두 대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협주곡 D단조', '사계' 중 '가을'과 '겨울'이다.

박유림·정하나·안지애·유민재·임예슬·류선아·서윤아·서서희씨 등이 협력하며 30여명의 단원이 출연한다. 시위는 유건우(광주시립교향악단 부수석)씨가 맡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운드포스트 앙상블은 조선대, 전남대, 광주예고, 전남 예고 졸업생과 재학생을 중심으로 지난 2004년 현악 주자 오현미씨가 진행하는 여름 캠프에 참여했던 이들이 창단한 '비바 바이올린'이 모태다. 매년 2~3차례 연주회를 가져오던 단원들은 지난 2013년부터 규모를 확장, '사운드포스트앙상블' 이름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10-4261-5717.

광주예총 발간 '예술광주' 봄·여름호 나왔다

광주예총(회장 최규철)이 발간하는 '예술광주' 봄·여름호가 나왔다.

'빛과 어둠'에서는 송인동 호신대교수가 '아시아문화전당,이대도 좋은가?'를 통해 오는 9월 개관하는 전당에 대한 의견을 실었다.

기획으로는 오래된 광주서구문화센터가 새롭게 변신하는 모습을 기록한 '공간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화가 주홍)와 전형적인 농도(農道)인 전남 지역 농어촌 건축을 살펴본 '내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촌(村)스런 건축'(건축사 서재형)을 담았다.

또 사진작가 강경숙씨가 라오스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아시아 피플-라오스 편'도 눈길을 끈다. '아트&아티스트' 코너에서는 강



운·백준선·손영환·전영화·정영숙씨 등의 그림과 수필 최미경씨의 '현재를 샀다', 정숙인 씨의 칼럼 '문화산업과 팬덤 현상'을 실었다.

그밖에 광주예총이 김보배·김세진씨 등 8인의 청년 작가를 초청해 진행한 '도시 이야기전' 등 다양한 예술소식과 무용협회 등 6개 협회 소식도 담았다. 문의 062-528-920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15 미술주간행사추진단, 작품 구입 공모

'2015 미술주간행사추진단'은 2015년 미술주간(오는 11월 말 예정)을 맞아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작품구입 공모를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작품구입 공모에 선정된 작품들은 전시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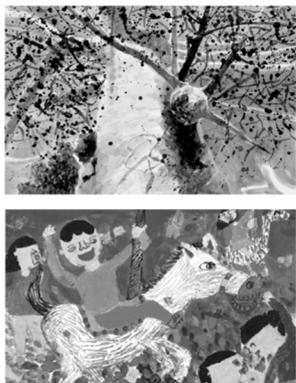
사진, 서양화, 서예 등 시각예술분야 평면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개인전 1회 이상(학위정구전 및 부스개인전 제외) 개최한 국내 작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정

인원은 200명(각 1점)으로, 공모에 선정되면 1점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작품 크기는 4~10호다.

작품 접수기간은 오는 17~28일이며, 결과는 오는 9월25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이 작품들은 오는 11월 대항로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에서 1점당 10만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특히 전시 기간 동안 참여 작가들의 이름·출신 학교·경력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전시 수익금은 미술계에 지원될 예정이다. 문의 061-900-220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호남예술제

호남예술제 60주년 기념전시회



전국 예술꿈나무들의 큰잔치,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인 호남예술제 60주년을 맞아 준비한 전시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최근 10여년간 호남예술제 미술·작문 부문 최고상 수상작 전시 호남예술제 출신, 작가, 심사위원 등 후원자가 작품 전시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88(입장료 무료)

2015. 8.13(목)~8.22(토) 오전10시 ~ 오후5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1, 2전시실

주최 | 광주일보사, 아시아문화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미술부문 최고상 | 2006년 제51회-임슬기(비야중3), 김민희(광주여고2) | 2007년 제52회-조은지(전남중3), 김해주(광주여고2) | 2008년 제53회-김재현(일곡초2), 김민정(광주중앙초4), 신재민(광주중앙초5), 정소리(전남중3), 이은주(전남여고3) | 2009년 제54회-이호현(동림초2), 김세민(광주교대부설초3), 정은재(신암초5), 이주희(광주경신중2), 진재영(첨단고2) | 2010년 제55회-김준서(마지초2), 임하리(순천남초2), 박지현(광주송원초3), 이세림(광주송원초6), 이가영(일곡중2), 박상아(광양제철중3), 노하은(여수여고2), 김다영(호남상곡고2) | 2011년 제56회-최원정(진남초1), 박기은(유덕초3), 이시욱(매곡초5), 전혜주(광주북성중2), 범지선(수피아 여고2), 조아리(대성여고3) | 2012년 제57회-이예원(고실초1), 조은송(광주송원초3), 김민정(용두초5), 김민혁(장덕중3), 정윤미(살레시오여중3), 이인혜(광주여고1) | 2013년 제58회-심세경(금당초1), 권유선(광주계림초4), 정재윤(광주송원초6), 강민지(광주동성여중3), 정지윤(광주여고2), 박혜령(조대여고2) | 2014년 제59회-정윤실(광주송원초1), 김예린(광주계림초4), 정다연(문남초5), 정다연(대성여중2), 문지윤(장덕중3), 윤화인(전남여고2), 박혜령(조대여고3) | 2015년 제60회-김윤서(광주송원초2), 정요훈(장덕초3), 김민지(서광초), 천미성(용두중3), 오승희(삼무고2), 박신영(광주여고2) | 2006년 제51회-김성희(광주팔곡초5), 박주연(동아여중2), 김지수(인현청량중3) | 2007년 제52회-조혜민(광주송원초2), 김하연(동아여중3), 정다윤(풍암고2) | 2008년 제53회-김민영(유안초4), 이주희(동아여중3), 한유나(대광여고2), 신미희(보문고3) | 2009년 제54회-최지윤(광주송원초1), 송상혁(송의중1), 백재열(인양여고3) | 2010년 제55회-박동현(두암초4), 조은(광양동초4), 황현웅(광주송원초5), 김소연(동아여중2) | 2011년 제56회, 차진우(영주초4), 김유진(광주송원초6), 김민빈(경신여고3), 김민정(경신여고3) | 2012년 제57회-김남현(광주송원초4), 심현지(문정여고3), 차나연(삼일여고3) | 2013년 제58회-전유민(유덕초4), 손상원(광주삼육초5), 정소영(대성여고3) | 2014년 제59회, 이상재(광주송원초4), 박민우(광주송원초6), 류강희(여도중3), 선해경(금호중영여고3) | 2015년 제60회-김지우(광주송원초5), 정지윤(동아여중3), 공해지(광주장덕고3) *수상당시 학교명과 학년을 표기하였습니다.

